주요국의 경쟁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미국 법무부, 구연산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5번째 추가 기소

-구연산 카르텔에 벌급 합계금액, 4억불 돌파-

미국 법무부는 프랑스의 대형 농산물업자 Eridania Beghin-Say SA의 화란자회사인 Cerestar Bioproducts BV사가 전세계 시장에서 구연산의 가격유지 및 시장점유율의 할당을 기도한 국제적 공모행위에 관여하였다 하여 유죄를 인정, 벌금 40만불의 지불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기소된 이 사건은 구연산업계에서 5번째의 기소이며 과거 20개월에 걸쳐 반트러스트국에 의하여 기소된 일련의 국제카르텔 사건가운데 최근의 사건이다. 이들 사건에 부과된 벌금의 합계는 4억불 이상이 된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과 관계없이 미국의 소비자를 저해한 국제카르텔의 참가자를 반트러스트국이 금후에도 기소를 계속하여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쇼엘크라인 반트러스트 국장은 언급했다.

구연산은 여러 가지 당류에서 생산되는 향미첨가제 및 보존제의 일종이며 청량음료수, 가공식품, 세제, 의약품 및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다. 구연산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연간 12억불(1조6천200억원)이다.

소장에 의하면 Cerestar사 임원은 1992년 11월부터 1994년 4월에 걸쳐 구연산 업계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세계의 대형 구연산제조업자와 공모하였다. Cerestar사의 영업부장인 Silvio Kluzer도 이 구연산 국제카르텔에 관여하였다 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4천만불 지불에 합의하였다.

■ '98. 6. 23, 법무부 발표문

미국 법무부, MCI의 인터넷 부문 매각을 조건으로 Worldcom사와 MCI사의 합병 승인

- 합병사상 최대의 기업 매각 -

미국 법무부는 Worldcom Inc.사가 MCI사(MCI Communications Corp.)의 440억불에 취득하고, MCI사가 자사의 인터넷 부문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MCI사는 자사의 인터넷 부문(InternetMCI)을 Cable & Wireless plc사에 약 17억5,000만불로 매각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 매각은 합병사상 단독기업으로서는 최대의 규모가 된다. 법무부는 이 매각 계획의 조건 및 시장에 줄 영향을 조사한 후, 이 매각에 의하여 Worldcom사와 MCI사의 합병에 대한 사법성의 경쟁상의 염려는 해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Worldcom사와 MCI사의 합병에 의하여 전 미국의 인터넷 백폰 서비스(Internet bag-phone service : 인터넷 정보를 전하는 다양한 대용량의 컴퓨터 넷트웍을 접속하는 서비스)의 2대 공급업자가 결합하게 된다. 백폰 서비스의 고객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America Onfine 이나 Erols와 같은 업자), 민간 및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이 합병은 당초계획된 상태에서는 합병회사에서 전 미국에 인터넷 통신의 대부분을 공급하게 되므로 동 합병회사가 경쟁업자에게 공급하여 온 인터넷 서비스의 질을 떨어지게 할 능력을 동 회사(합병회사)에게 주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매각은 인터넷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이 매각은 큰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이 역동적인 신흥산업에서 저가격, 고품질 및 보다 대규모의 기술혁신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사법성 반트러스트국장 쇼엘 크라인은 말하였다.

이 매각은 Worldcom사와 MCI사의 합병이 완료되는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끝난다. 법무부는 Worldcom사와 MCI사가 합병을 완료하기 전에 이 매각을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합병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무부와 구주연합(EU)의 심사는 1997년 10월 Worldcom사가 MCI를 취득할 의향을 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양 당국의 심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밀접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합병 당사자의 합의를 얻기위하여 양 당국은 상호 정보를 교환하였다. 양 당국자는 합병당사자와의 합동회의도 개최하였다. 더욱이 지난주, 구주위원회(EC)가 Worldcom사와 MCI사의 합병을 승인하기 전에 동 위원회는 1991년 미국 - EC 반트러스트 협력 협정에 의하여 문서의 교환을 통하여 이 매각계획의 평가 및 집행에서 법무부의 협력 및 원조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이 매각 계획은 구주위원회와 법무부의 쌍방에게 제출되었다.)

「우리들은 각각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심사의 전반에 걸쳐 EU와의 밀접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우리들은 이러한 종류의 협력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향해서도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법무부 크라인 국장은 말하였다.

10개주에서 법무부장관(플로리다, 일리노이, 메사추세츠, 미주리, 뉴욕, 노스케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파시니아 및 위스콘신주)도 본건 심사에 참가하였다. 미시시피주 샤구송에 본사를 둔 Worldcom사는 국제전기통신기업이며 이 회사의 1997년 연간 수익은 73억 5천만불이었다.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MCI사는 미국에서 2번째 대규모 전기통신 공급업자이며 전세계에서 5번째의 전기통신 공급업자이다. 이 회사의 1996년 연간수익은 185억불이었다.

영국의 런던에 본사를 둔 Cable & Wireless plc사는 전기통신 및 멀티미디어(multi-media)통신 서비스의 주요공급업자이며 이 회사의 연간수익은 약 120억불이었다.

■ '98. 7. 15, 법무부 발표문

미국 법무부, 탄약회사를 입찰 조작으로 기소

미국 법무부는 9월 2일 테네시주 Milan에 소재한 Milan Army Ammunition Plant(이하 "MAAP사"라 함)에서 생산되는 탄약에 사용될 부품 공급입찰을 조작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한 탄약제조업체를 기소하였다.

테네시주 Jackson에 소재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기소장에서 법무부는 Valentec International Corporation LLC가 입찰을 조작하여 경쟁을 제약 및 제거하기로 한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당해 공모는 1988년에 개시되어 1992년까지 지속되었다.

"군수물자 조달절차의 투명성은 미국의 방위에 핵심적인 것이다. 당해 절차를 해하는 자들은 형사기소될 각오를 하여야 한다."라고 반트러스트 국장인 Joel I. Klein은 언급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Valentec International사는 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공모업체들과 함께 탄약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의 입찰서를 MAAP사에 제출함으로써 경쟁의 외관만을 갖추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기소는 MAAP사의 조달관행에 대한 Jackson 지역에서의 대배심 조사의 결과이며, 당해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법무부 테네시 서부 사무소, 미 육군 형사조사국, 국방부 형사조사국, FBI 및 국세청 형사조사국의 합동조사 결과 이루어진 기소 중 아홉번째이다.

Valentec International Corporation LLC는 Valentec International Corporation이 명칭을 변경한 회사로서 California를 주된 영업지로 하나 본사는 델라웨어에 소재한 법인이다.

셔먼법 위반의 평결을 받은 법인에 대한 최고 형벌은 1,000만달러, 당해 범죄로 얻은 금전적 이익총액의 2배, 당해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총액의 2배 중 최고액의 벌금이다.

■ '98. 9. 2, 미국 법무부 보도

미 법무부, Banc One - First Chicago간 기업결합 인가

미국 법무부는 Banc One Corp.와 First Chicago NBD Corp.간의 290억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이들 은행이 15억달러의 예금총액을 보유한 인디애나주의 39개 지점을 매각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를 인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은행은 또한 인디애나주의 중간 규모 상업적 대출 사업체의 매각도 제의하였다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밝혔다. Union Planters Corp.가 이들 자산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1999년 1/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소재한 Banc One은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폐쇄될 어떠한 은행 지점이든 다른 금융기관이 임대 내지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려 하지 않을 것임에도 합의하였다.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미국 제5위의 은행이 탄생하게 될 것인데, 이는 연방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8. 9. 9, Los Angeles Times

미국 FTC, Irvine 지역의 타일 합작투자사업 제소

미국 반트러스트 집행당국은 9월 22일, 건축자재 제조업체들인 LaFarge SA 및 Boral Ltd.가 법률적 허점을 이용하여 지붕용 콘크리트 타일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품질을 저하시키며 시장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합작투자사업을 Irvine 지역에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두 회사를 상대로 한 소장에서 Boral사, 그리고 LaFarge사가 올해 초에 인수한 Redland Plc는 이들 두 회사가 Monier Lifetile LLC를 설립할 당시 미국의 2대 지붕자재 제조업체였다고 하였다.

이 Monier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등기함으로써 이들은 당해 기업결합에 대하여 미국 반트러스트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들은 반트러스트법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는 합작투자사업을 설립하였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기업결합 이후에 이를 제소하는 것이다"라고 FTC 경쟁국장인 William Baer는 언급하였다.

그는 연방 반트러스트법의 집행기관인 FTC와 법무부가 동일한 사실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행 규정을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소재한 Boral사는 FTC 주장의 반박 여부에 대하여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동 회사의 대변인인 Mark Gell은 밝혔다.

"우리는 FTC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과거 몇 개월 동안 이에 대하여 협의중이었다. 그 결과를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Gell은 언급하였다.

지붕용 콘크리트 타일은 남부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및 플로리다주의 신축 주택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당해 제소는 FTC 행정판사의 심리하에 진행될 것인데, 행정판사는 Monier사로 하여금 Boral사 또는 Redland사의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거나 또는 당해 합작투자사업을 해체하도록 할 수 있다.

Boral사는 제2위의 지붕용 콘크리트 타일 제조업체이며 1996년 미국 내에서의 총매출액은 36억달러에 달하였다.

Redland Plc는 미국의 자회사인 Monier Inc.를 통해서 영업하고 있으며 파리에 소재한 LaFarge사가 동 회사를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미국 최대의 타일 제조업체였다.

소장에 따르면 Boral사와 Redland사는 1997년 8월에 Monier Lifetile사를 설립하였으며, 각 회사의 타일 제조용 자산을 Irvine에 소재한 당해 합작투자사업에 출연하였다.

Monier사로 인하여 이들 두 회사간의 경쟁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이는 대체적 공급업체가 거의 없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FTC는 주장하고 있다.

■ '98. 9. 23, Los Angeles Times

E U

유럽위원회, GEC의 합작투자사업 인가

유럽위원회는 9월 1일, 영국의 General Electric Company와 이탈리아의 Finmeccanica사간의 합작투자사업 계획 중 비군수 부문에 대하여 이를 인가하였다. 이 합작투자사업은 지상 및 해상 레이더 및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하여 군수산업 부문을 다루는 보다 광범한 합의의 일부이다.

그러나 영국법에 따르면 영국과 이탈리아 정부는 "긴요한 안보상 이해관계"를 이유로 당해 합작투자사업의 군수 부문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에의 통지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당해 합작투자사업의 비군수 부문 활동은 항공 통제 및 관리 시스템, 민간 지휘, 정보 시스템, 그리고 시뮬레이션 및 훈련기기 등을 포함한다.

동 위원회는 검토대상 사업영역에서 이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낮은 상태이며 현재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경쟁업체들을 비롯하여 다른 EU 기업들로부터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당해 합작투자사업을 인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98. 9. 1,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15개 해운회사에 2억 9,800만달러 벌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9월 16일 대서양을 횡단하는 컨테이너 교역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의 대형 해운회사 15개사에 대하여 2억 7,300만 Ecu(2억 9,800만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하였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 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당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하였으며 가격고정 카르텔을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서양 횡단 해운동맹협정(Trans-Atlantic Conference Agreement, TACA) 회원사들에 대한 이번 벌금 부과는 과거 기록이었던 1995년 시멘트 제조 카르텔에 대하여 부과된 2억4,800만Ecu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각 업체에 개별적으로 부과된 벌금은 올해에 경쟁 관련 시장력 남용을 이유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폴크스바겐사에 부과된 1억200만Ecu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암스테르담에 소재하고 있는 TACA는 동 위원회가 "다수의 사실상, 절차상 및 법률상 오류"를 범하였다고 비난하며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15개사 대부분은 688만Ecu와 2,750만Ecu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영국-네덜란드 합작 컨테이너 해운회사인 P&O Nedlloyd사에는 4,126만Ecu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대다수의 시장력 남용이 P&O사와 Nedlloyd사간의 기업결합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P&O Nedlloyd사의 합작 파트너이자 P&O사의 회장인 Lord Sterling은 9월 16일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와 거의 합의에 도달하였던 상태였다. 과거의 문제에 관하여 이러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유럽선적업협의회 -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 - 는 1993년부터 1995년 사이에 TACA와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대서양 횡단 협정(Trans-Atlantic Agreement) 회원사들이 80% 이상 가격을 인상시켜 왔다고 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었다. 미국의 연방해사위원회는 TACA가 공표한 1995년의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선적업체들은 1994년에 6,500만달러 내지 7,500만달러를 추가 지불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선적업체들은 9월 16일, 비록 벌금액의 수준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당해 결정을 환영하였다. "이는 수출업체들이 해운회사들이 공표한 요율에 따를 필요 없이 가격과 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협정 체결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영국 선적업협의회 회장인 John Grieveson은 언급하였다.

이번 벌금 부과는 유럽위원회와 해운업체간의 오랜 기간 동안의 대치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대서양 횡단 협정은 반경쟁적이라는 이유로 1994년 유럽위원회에 의해 금지되었다. 같은 해에 TACA 회원사들은 유럽 경쟁정책 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에 대하여 해운협의에 관한 EU 특별규칙에 따라 EU의 카르텔 협정에 대한 금지규정의 적용면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Van Miert 위원은 북유럽과 미국간의 운송에 대한 가격 고정 협정만이 적용면제될 수 있으며, 내륙운송 서비스와 화물 발송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가격고정, 그리고 서비스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대한 해운회사들간의 합의는 유럽 카르텔 금지법의 위반이라고 하였다. Van Miert 위원은 또한 TACA 회원사들이 대서양 횡단 컨테이너 화

물 시장에서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 '98. 9. 17, Financial Times

일 본

공취위, 의료마취가스 카르텔 관련 4개사에 과징금 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9월 9일까지 수술 등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취가스(아산화질소) 제조업체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였다. 명령액은 4사 합계 약 5,300만엔이다. 4개사는 국립대학병원 등에의 마취가스 납입을 둘러싸고 부당한 가격카르텔을 결성하고 있었다고 하여 1997년 1월 공취위로부터 배제권고를 받은 상태이다.

명령을 받은 업체는 쇼와덴코(昭和電工), 쓰미토모세이카(住友精化), 닛산(日產)화학공업, 코이케(小池)메디컬(본사 동경)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다른 3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구성, 1994년부터 1995년에 걸쳐 간담회에서 국립대학 42개교와 방위의과대학교의 부속병원에 납입하는 30킬로그램들이 마취가스통의 단가를 결정하여 왔다는 것이다. 납입가격의 하락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납입실적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약가기준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들 4개사는 국립대학용 마취가스통 시장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납부명령액 산정 당시 4개사의 매출액은 1994~1995년도에 9억 2,900만엔이었다.

■ '98. 9. 10,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쓰레기 소각로 담합 혐의로 10여개사 현장조사

시 등 지방공공단체가 발주하는 쓰레기 소각공장의 입찰을 둘러싸고 제조업체 10여개사가 담합을 반복하여 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9월 17일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혐의로 이들을 현장조사하였다.

현장조사를 받은 업체는 미쯔비시중공업 외에 이시카와지마하리마((石川島播磨)중공업, 히타치조선, 타쿠마, 에바라(荏原) 등 대형 공장 건설업체들로서 조사대상업소는 30여개소에 달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쯔비시중공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쓰레기 소각공장의 지명경쟁입찰을 둘러싸고 수주가격의 하락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의논하여 낙찰가격 및 수주사를 조정하여 온 혐의가 있다고 한다.

쓰레기 소각공장은 소형로의 경우 상당수가 다이옥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생성과 지방자치단체는 소각량 100톤 규모 이상의 중·대형로에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각한 재의 매립처리가 어려워지고 있어, 소각 후 재가 발생하지 않는 신형 소각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쓰레기 소각공장 시장은 연간 3,000억엔을 넘는 규모로서, 장기적으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지만, 최근 1, 2년은 중·대형로 및 신형 소각로에로의 전환의 흐름도 끝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수주가격의 유지 및 수주기회의 균등화가 도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히타치조선(본사 오사카시) 및 미쯔비시중공업(본사 도쿄), 타쿠마(본사 효고(兵庫)현 아마가사키(尼崎)시) 등은 1975년 전후로 「5사회」등으로 불리는 조직을 만들어 담합으로 볼 수 있는 회합을 정기적으로 반복하였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조정역할은 히타치조선의 임원이 맡았으며, 5개사가 돌아가며 시설을 제공하여 회합이 개최되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담합으로 볼 수 있는 회합에 참가하였던 회사는 히타치조선, 미쯔비시중공업, 타쿠마 외에 NKK(본사 도쿄), 가와사키(川崎)중공업(본사 코베시)의 5개 회사로서, 공장 건설업체 중에서는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의 선발주자들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회합은 1973년경부터 개시되었다고 하며, 1977년경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주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회합은 당초 「5사회」로 불렸으나 이후 「환위회(環衛會)」등으로 변경되었다. 회합의 조정역할은 최대기업인 히타치조선의 임원이 맡았으며, 장소는 5개사가 돌아가며 도쿄 내에 있는 각 회사의 본·지사 및 휴양소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 '98. 9. 17, 일본경제신문
& '98. 9. 18, 아사히신문

유 럽

프랑스 재무장관, 코카콜라사의 Orangina사 취득 저지

Dominique Strauss-Kahn 프랑스 재무장관은 미국 청량음료 회사인 코카콜라사가 음료 제조업체인 Orangina사를 50억프랑(5억8,000만달러)으로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당해 기업결합이 프랑스 탄산음료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였다. 금주 초에 Strauss-Kahn 장관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당해 기업결합을 인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무장관은 자신의 결정이 프랑스 경쟁 규제당국인 경쟁평의회(Conseil de la Concurrence)와 코카콜라사간의 격렬한 협상이 동 평의회의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한 이후 동 평의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경쟁평의회는 "가정 외의 탄산음료 시장에 대한 코카콜라사로부터의 심각한 경쟁에 대한 위협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소비자들에게 해를 미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재무부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코카콜라사는 가정 외에서 소비되는 청량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 시장에는 카페, 호텔,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자동판매기 및 영화관에서의 청량음료 판매가 포함된다.

9월 17일의 이 결정은 최근 2주 동안 프랑스 정부가 미국 기업이 프랑스 내의 회사 취득을 저지한 두 번째 사례이다.

지난주에 Strauss-Kahn 장관은 프랑스 담보부 대출업체인 Credit Foncier사 인수를 추진 중이었으며 제너럴모터스사 계열의 금융회사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미국 컨소시엄과의 대화를 중단하였다. 재무부 관리들은 당해 결정이 반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작년 말 Orangina사의 매각이 발표된 이후 이는 특히 코카콜라사의 최대 경쟁사인 펩시사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였는데, 펩시사는 이미 Orangina사와 제한적인 제품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달(9월) 초에 펩시사 프랑스 법인은 프랑스 내에서 트로피카나 과일주스를 제외한 펩시사의 모든 브랜드 음료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10년 기한의 갱신가능한 독점권을 Orangina사에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Orangina사의 가치는 상승하여 동 회사의 소유주인 Pernod Ricard가 Orangina사를 상장시킬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그 가치는 코카콜라가 제시한 50억프랑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은 Orangina사의 수입의 40배에 달한다.

이번 주에 코카콜라사는 Orangina사의 근로자 대표와의 협정에 서명하였는데, 이 협정은 2000년말까지 현 고용수준을 보장하며 주당 35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협정은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지와 규제당국의 인가를 얻기 위한 최후의 로비로 간주되었다. 대다수의 고용주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사회당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 '98. 9. 18, Financial Times

영국 통상산업부, PowerGen사의 East Midlands사 취득 인가

영국 통상산업부는 Ladbroke사가 입찰을 통해 Coral사를 3억6,300만 파운드(5억9,800만달러)로 인수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당해 취득을 저지하였다고 9월 23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영 마권판매업체인 Stanley Leisure사와 the Tote사가 Coral사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 포함되고 있다.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인 Peter Mandelson은 독점·기업결합위원회(MMC)의 권고를 받아들여 Coral사는 단일한 사업체로서 매각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the Tote사와 Stanley Leisure사는 833개 마권판매점에 대한 공동인수 제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호텔업 및 마권판매업을 영위하는 그룹인 Ladbroke사와 마권판매 체인점으로서 작년 일본 은행인 노무라 은행에 인수된 William Hill사에 이어 제3위의 마권판매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Mandelson 장관은 "분할 매각이 더욱 건전한 경쟁 환경을 만들

어 낼 것으로 보일 경우"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MMC는 당해 기업결합이 전국적 차원에서 가격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며 대형 마권판매 체인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 것이다.

475개 마권판매점을 보유하고 있는 Stanley Leisure사의 회장인 Leonard Steinberg는 9월 23일 동 회사는 단독으로 또는 the Tote사와 공동으로 Coral사의 체인점 인수관련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마 전체 사업부문을 매수하고 불필요한 점포는 매각하게 될 것이다."

인수와 관련하여서는 Charterhouse, CVC 및 NatWest Ventures와 같은 민간 주식투자회사들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무라사도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번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경쟁 관련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Ladbroke사의 사장인 Peter George는 Coral사가 인수희망업체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표명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1월 이후 마권시장의 약세를 고려할 때 동 회사가 더 높은 가격에 매각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또한 MMC 보고서를 통해 Ladbroke사는 노무라사를 비롯하여 다른 입찰업체보다 15% 이상 높은 가격을 써냈음이 밝혀졌다.

■ '98. 9. 24, Financial Times

영국 통상산업부, Ladbroke사의 Coral사 취득 저지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인 Peter Mandelson은 9월 24일, PowerGen사가 East Midlands Electricity사를 19억 파운드로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경쟁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동 회사가 2개 대형 석탄발전소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인가하였다.

Mandelson 장관의 당해 인가는 당해 취득 계획을 독점·기업결합위원회(MMC)에, 그리고 PowerGen사가 보다 많은 자산을 처분할 것을 요구한 전력산업 규제당국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공정거래청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MMC의 조사는 관련 자산의 처분을, 그리고 수천 명에 해당하는 탄광 일자리를 보존하여 줄 것으로 정부가 믿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의 장기 석탄 구매계약의 서명을, 지연시켰을 것이었다.

Mandelson 장관은 당해 취득 제안이 "심각한 경쟁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에는 공정거래청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PowerGen사가 13,628MW의 석탄 및 가스 발전용량 중 4,000MW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 당해 취득을 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이것이 "단지 당해 기업결합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Mandelson 장관은 다음 달에 새로운 전력도매요금 설정체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석탄 판로 보장을 위해 가동률이 낮은 석탄발전소의 매각 및 가스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정부 제안에 대하여 회답을 공표할 예정이다.

경쟁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결합 규제시에 정치적 관여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Mandelson 장관이 최초의 중요한 기업결합 관련 결정에서 공정거래청의 권고를 무시한 것은 역설적이라고 하였다.

PowerGen사는 East Midlands사 취득을 인가받는 대가로 단지 1개소의 2,000MW급 발전소의 매각을 제의하였었다. 분석가들은 요크셔에 소재한 Ferrybridge 발전소가 매각대상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당해 자산매각으로 9억 파운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산업 규제담당자인 Stephen Littlechild 교수는 전력거래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대형 발전업체들의 가격설정 권한을 줄이기 위한 일단의 조치로서 PowerGen사가 3개의 석탄발전소에서 6,000MW의 설비를 매각하기를 희망하였었고, 영국 최대 화석연료발전소인 National Power사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자산 매각을 요구하고 있었다. National Power사는 9월 24일 동 회사는 규제당국과 자산매각에 대하여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석탄발전소 매입에 관심을 표명한 에너지부문 회사들 중에는 British Gas라는 상호로 영업활동을 하는 Centrica사, 원자력발전업체인 British Energy사, 미국 에너지그룹인 Enron사, 그리고 미국 석탄그룹인 RJB사가 포함된다. Scottish Hydro-Electric사와 기업결합할 계획을 갖고 있는 Southern Electric사도 관심을 표명하였다.